

중국, '상업주의 불교'에 파묻히나

세계에서 불교도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 'Public Radio International(이하 PRI)에 따르면 불교도 수가 2억여 명(현재 기준)으로 추산되는 중국이다. 그런데 'PRI'는 "이런 통계수치로 중국 불교계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와 중국 불교계의 밀월에서 부처님 가르침과는 상반된 단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PRI'이 중국 불교계 성장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불교계의 밀월의 뼈대를 이룬 '불교정책'과 '상업주의'에 주목한 까닭이다.

'PRI'는 "현재 중국 불교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좋은 교육을 받은 후 도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계층"이라는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중국인 여성학자 아나(Ana·가명)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이들은 중국 불교 부흥에 일조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반(反)불교정책'을 펴는 순간 '무신론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PRI'과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무신론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나 박사는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며, 중국이 불교를 다시 수용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이 일이 개인적으로 선업을 쌓는 공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나 씨에 따르면 그녀 자신은 엄격한 무신론자였던 조부의 슬하에서 자랐다. 당시 조부는 "종교란 무지한 대중을 통제하는 데 사용했던 독재자의 통치 도구"라는 말



중국 불교가 부흥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불교도 수는 2억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세계 각국 중에서 가장 많은 불교도 수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중국 불교계의 상업주의를 앞세운 밀월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양적 성장의 기반이 불교도 수가 '허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중앙·지방정부 친불교 정책... 사원 수익에만 주목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수행·신행' 부추겨

을 그녀에게 자주했다. 그녀의 부모는 조부처럼 '확고한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만약 돈이 된다면 관리하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녀에게 애써 말했다. 이에 대해 "지금의 중국인 대부분 선대와는 달리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호응하고 있다"고 전제한 아나 박사는 "그러나 중국에서는 '불성'이란 중국 정부의 '친(親)불교정책'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티베트 불교계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범죄자' '분리주의자'로 낙인을 찍은 중국 정부가 학자들의 티베트 불교 연구를 후원하는 양면성을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즉,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때 자신의 '불성'도 포기하는 등 모든 종교적 행위와 연구를 중단할 수도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의 대 불교 가이드라인, 즉 입김은 중국 남서부 도시 충칭의 아라한사의 경우처럼 사원 운영에도 미치고 있다. 아라한사는 지난 쓰촨성 대지진 직후 지역 주민에게 '긴급 구호' 예산 것으로 주목 받았다. 'PRI'는 아라한사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종무원 지양(Jiang·60) 씨의 말을 인용, "아라한사를 방문한 대중들의 보시금이 먼저 중국 지방정부에 보내지는데, 지방 정부는 그것에 근거해 아라한사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 씨에 따르면 아라한사의 예산에는 '학생 장학금'과 '병원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쓰촨성 대지진 이재민을 도운 기금도 이 예산에서 '긴급 편성' 됐다.

'PRI'는 이를 "중국 정부와 사원 모두에게 유익한 '윈-윈(win-win)'이라는 '전략적 정책' 하에서만 수행과 실행을 펼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는다.

이를 반증하듯, 중국 정부는 사원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사원을 거점으로 한 관광 사업도 주도하고 있다. 사원 역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 사원 보시금을 늘리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상하이 옥불산사의 천도제의 경우, 참여 스님의 수에 따라 보시금이 결정된다. 10명의 스님이 참여하면 1천5백 달러, 40명의 스님이 참여하면 6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다. '새로 구입한 차에 축원 기도를 올린다'는 광고 포스터가 사원 광고에 게재되기도 하고, 새해 첫 향을 태우는 신년 기도법회에서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격을 겨 팔기도 한다.

이에 대해 "사원에서 축원을 올리는 일이, 이제는 가게를 방문해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됐다"는 아나 박사는 "신년 기도법회 때 앞자리는 부유한 사업가나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면 넘볼 수 없는 자리"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상업주의에 입각해 불교를 수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중국 불교계는 비판 없이 그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말레이시아서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무덤' 발견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이슬람교라는 이유로 각종 박해를 받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서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집단무덤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신매매 조직들은 난민들을 가졌던 태국에서 말레이시아 캄프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 현지 경찰은 이 과정에서 많은 난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AFP통신·AP통신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5월 25일 말레이시아 북부 국경지대 페를리스주 산간 지역에서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매장된 무덤 139곳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2년 미얀마에서는 인구 90% 이상의 불교도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간의 종교 분쟁이 일어났다. 이 결과로 2백여 명이 숨지고 14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로힝야족은 미얀마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배에 실려 표류하

인신매매 조직 범행 추정... 당국 조사 착수 달라이라마, 노벨평화상 수치 여사에 도움 요청

이와 함께 무덤이 발견된 밀집 인근에서는 밀입국자 인신매매조직 28개 캠프가 확인됐다.

경찰 당국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한 무덤 당 2구의 시신이 묻혀있다고 추정된다"며 "발견된 인신매매캠프 중 가장 큰 곳은 최대 300명을 수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매매조직은 로힝야족에게 밀입국 원조로 접근해 수천 달러를 받아낸 후 협박과 고문을 일삼아 왔다. 이에 최근 경찰이 난민 수용소 단속을 강화하자

는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왔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5월 28일 호주 언론 'The Australian'과의 인터뷰에서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 미얀마 민주화운동가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에게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달라이라마는 "로힝야족 난민은 국제사회에서 방치돼 있다"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가 로힝야족 인권 보호를 위해 크게 힘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익기 기자

솔트레이크시티에 피어나는 법향

툽텐 스님, 모르몬교 성전 유타 주에 선군을 심다



툽텐(Lama Thupten Dorje Gyaltsen) 스님이 지난 4월 25일 어그엔 삼텐 링(Urgyen Samten Ling) 사원을 찾은 불자에게 법문을 하고 있다. 사원 주지를 맡고 있는 스님은 인근 유타대학(University of Utah)의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모르몬교의 성전이라는 유타의 주도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에서 선군을 심고 있는 스님이 화제다. 'Salt Lake Tribune' 지는 "어그엔 삼텐 링(Urgyen Samten Ling) 사원의 툽

텐(Thupten·주지스님·사진) 스님이 모르몬교 성전 주민들의 신심을 다잡고 있다"며 "스님은 사원을 찾은 불자나 일반인들에게 명상과 자비의 가르침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툽텐 스님이 법석에 앉는 날이면, 사원을 찾는 사람들이 평소 2배에 이르는 정도로 많다.

그들이 스님을 찾는 이유는 "서로를 격려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스님의 가르침이 좋다(셀라 브레드), "스님은 항상 사회 갈등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인종·종교 문제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스톡 소머드롭프) 등 다양하다.

'Salt Lake Tribune' 지에 따르면 툽텐 스님의 '호혜적인 불교관'은 그의 독특한 이력에서 비롯됐다. 툽텐 스님은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미국 자치령, 괌의 군사기지에서 태어났다. 당시 스님의 어머니는 '미혼모' 신분이고, 해당 기지에서 근무하던 군인 윌리엄(W. Gardner, W. Lee) 부부에게 아이를 보냈다.

이후 스님은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던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유타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며 불교로 개종했다. 현재 스님은 유타대학 가드너(Gardner, Jerry A)

교수로도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 "저는 여러분을 봉양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툽텐 스님은 "사람의 모습과 생각은 만다라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이를 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주적 진리'이며,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배우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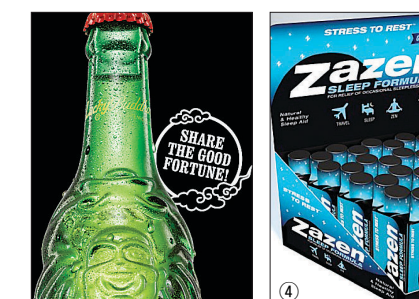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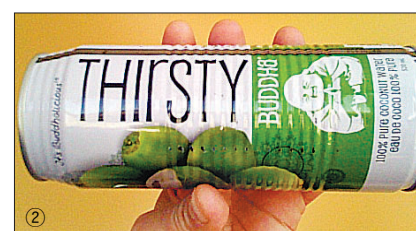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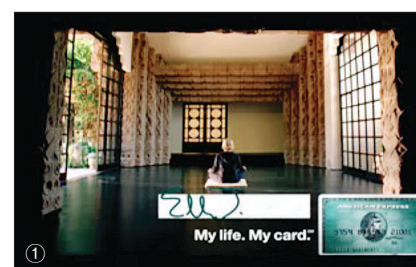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서로의 삶에 좋은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사회생활에서 '우주적 진리'를 실천하다보면 때론 '아웃사이드'가 된 기분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며 "명상은 우리 내면의 힘을 키우고, 우리는 그 힘으로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Salt Lake Tribune' 지는 "1994년 티베트 불교 사원으로 개원된 어그엔 삼텐 링 사원이 툽텐 스님을 중심으로 큰 걸음을 옮기고 있다"며 "최근 '티베트 불교' '불교 수행 입문' '명상 실수' 등의 주제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매주 일요일 '부자 의식'을 봉행하며 지역 신심을 다잡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와 상품이 과연 어울릴까?

카드·음료 등 상품마케팅에 불교 사용 인기



①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②이온음료 'Thirsty buddha'
③주류 'Lucky Buddha Beer'
④건강음료 'Zazen'

불교와 상품,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주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일까. 카드, 음료 등의 상품이 불교를 소재로 개발되고, 그에 따른 광고를 펼치며 소비자 지갑을 열고 있다.

'Lion's Roar' 지에 따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American Express card) 사는 어떤 상품에서도 거부되지 않는 카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명상 장

면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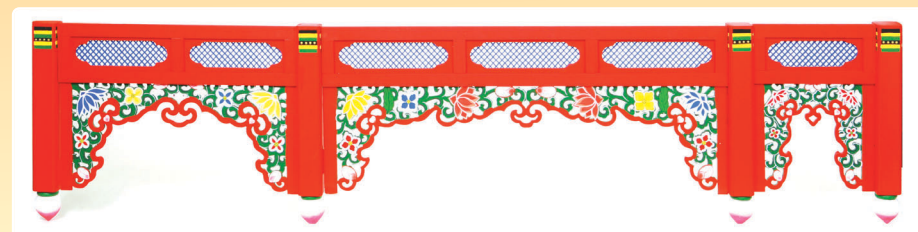
티엠(TM) 사는 건강음료 'Zazen'을 출시하고 몸과 마음을 채워줄 음료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호텔(Hotel) 사 역시 이온음료 'Thirsty buddha'를 출시하고, 불교의 청정성에 주목한 광고 전략을 펼치고 있고 엘비(LB)사는 행운을 불러주는 맥주라는 'Lucky Buddha Beer'를 내놓았다.

오종욱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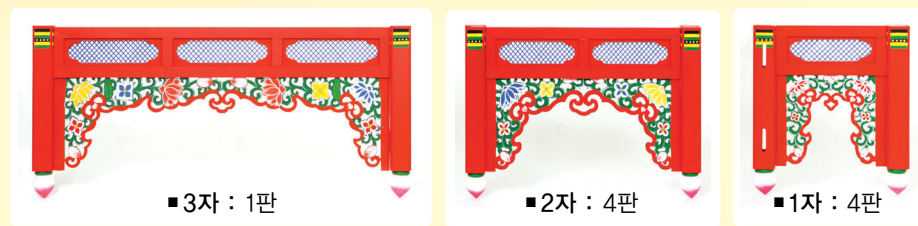
목각단 청운각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단청문각 1세트 17자 (5m, 10cm) / 가격: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 크 기: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영등 있습니다.

고전상사

전화: 031)442-3168 / 010-3772-31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농협 356-1008-993643 (예금주: 김판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오늘 운세는?

백팔번뇌 운수카드 + 복주머니 1SET 3만원

TIP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갑골문자(甲骨文)는 신석기 시대 점괘(占卦)를 기록한 점서로 한자의 모체가 되어 변(邊)과 획(劃)에 신통력이 있다. 바로 격양음유이나 정강음비결은 파자(破字)의 신통력으로 국운을 예지(豫知)한 예언서이다.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인생항로에는 길흉화복이 있으니 천부(天賦)의 계시로 신통력이 있는 백팔번뇌 파자비결(破字秘訣)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구름처럼 사라진다. ■ 계좌번호: 우체국 011965-02-112777 (예금주: 한영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 1길 16 정원아트하우스 2층 201호 / 전화 010-7742-3111 松岩 한영필 합장